

되돌아 본 중국

나는 5년전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 이번 겨울에 중국의 몇몇 도시를 여행하는 기회를 가졌다. 5년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홍콩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수교후에는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도 북경이나 상해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입국이 아주 편리해졌다.

中國旅行隨想

5년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여 보면 중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 단편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지만 중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도입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되었다.

우선 중국인들이 친절해졌다.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달라졌다. 항공기나, 호텔, 백화점 등 어디서나 외국인을 대하는 서비스가 아주 좋아졌다.

예를 들어 보자. 이번에 중국에 갈 때나 돌아올 때 중국민항 중의 하나인 中國東方航空을 이

용하였다. 5년전 중국 국내여행기를 타고 경험했던 불쾌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전혀 서비스는 기대하지도 않고 예전과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혼자 상상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국내선 비행기는 지정좌석도 없이 선착순으로 비행기 좌석을 잡았으며 기내제 공식사도 수준이 아주 낮았으며, 승무원들은 마치 군복같은 복장을 하고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역시 아주 딱딱하고 불친절하기 그지 없었다. 친절함 태도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예정된 비행스케줄이 갑자기 취소되어 황당한 경험을 한 일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그런일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는 항공서비스는 물론 승무원들도 세련된 복장에 태도도 아주 친절해졌으며 기내 식사, 안내 등 여러가지로 항공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되어 있어서 중국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다. 또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또는 일반상점 어디를 가나 종업원들이 손님을 끌기 위하여 온갖 친절을 베풀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예전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중국은 지금 개인적인 상점경영을 허가해 주고 있고 농토도 장기임차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자경농을 인정해 주고 있다. 중국이 정치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시장자유경제체제를 도

이 정 규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입하여 자본주의의 물결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다른 하나의 변화는 5년전과 비교할때 중국의 화폐제도가 바뀌었다. 예전의 중국화폐제도는 내국인이 사용하는 인민폐와 외국인이 외국인 지정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태환폐(FEC)의 2종류로 나누어졌으며 외국인이 쓰다 남은 태환폐를 외화로 재교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지금 중국은 화폐를 태환권(兌換券)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고 외화교환도 자유로웠다. 쓰고 남은 태환권에 대해서도 환전영수증만 제시하면 태환권을 외화(U.S.\$)로 환전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자국항공기 내에서 파는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는 태환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하나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95년 7월부터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일부기업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 6일 근무가 보통이고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격주 토요일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은 중국을 다시보게 만들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낫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서민들도 이제는 주말을 어떻게 보낼가 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으며 레저에 눈을 뜨고 일부 소득이 높은 계층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아 쪽으로 해외관광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은 공업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TV(세계 3위 생산)나 가전제품 자동차등의 생산면에서 한국을 바짝 뒤쫓아 오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우리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북경(北京)에서

북경은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의 옛 수도로서 주변 명승고적이 많다. 그 중에도 특히 관광명소로는 故宮(紫禁城을 개칭), 이화원(姬頁和園), 明 13陵이 있다. 故宮은 明, 清朝의 황제들이 살던 宮城으로 마지막 황제 부이가 살았던 곳이다. 고궁은 황궁의 규모가 큰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황궁의 옛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볼거리가 대단히 많은 곳이다. 고궁이 우리나라의 왕궁과 비교할때 특이한 점은 宮內에 나무를 심지 않은 것과 外濠를 설치한 점이다. 宮內에 나무가 있으면 혹시라도 자객이 침입하여 나무에 숨었다가 황제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故宮의 외곽은 바깥둘레를 전부 筒子河라고 하는 外濠를 설치하여 외부로 부터 침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황궁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수로를 이용한 점은 일본

의 왕궁(도쿄)과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왕궁과는 전혀 다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고궁의 편액(扁額)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死文化되어 없어진 만주글자를 볼 수 있다. 만주족이 글자를 가지고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족은 淸나라를 세워 중국의 전 국토를 200년 이상 지배해 왔지만 문화적으로는 중국의 漢族文化에 同化되어 만주글자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오래도록 유지해 오고 있는 우리민족을 생각할때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새삼스럽게 민족의 언어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화원은 淸나라 말기의 여결인 서태후의 개인별장으로 유명하다. 서태후는 淸末에 4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동안 실질적인 권력자로 막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황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를 바꾸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서태후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이화원에 하나 있다. 珍妃井이라는 우물이다. 지금은 우물은 메워지고 우물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우물이 메워진 사연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있었는데 서태후가 후궁을 시기질투하여 우물에 빠뜨려 죽인후 우물을 메워버렸다고 한다.

이화원은 서태후가 여름별장으로 사용한 곳으로 개인별장으로 는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한다. 이화원에는 서태후가 거처하면서 사용한 각종 건축물과 유물들이 원형대로 보관되어 있으며 산중턱에는 佛香閣이라는 불상을 모신 절이 있을 뿐 아니라 별장 내에는 청나라 해군을 동원하여 건설했다는 昆明湖가 있다.

昆明湖는 서태후의 영화를 상징하는 연못이었다. 이곳에서는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고 호수를 바라보면서 각종 연회가 베풀어졌을 뿐 아니라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서태후를 만나 막후교섭도 하고 정치적 흥정도 이루어졌던 淸나라 말기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호수는 인공적인 호수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한다. 마침 내가 이화원을 방문했을 때는 겨울이라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서 옛날의 영화와는 관계없이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썰매를 타고 있었다. 관광객에게 썰매를 대여해주는 재미있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썰매타는 광경을 보면서 나의 어린시절이 떠올랐다. 겨울에 눈에 가두어둔 물이나 냇물이 얼면 손수 썰매를 만들어 얼음지치기를 하면서 놀던 것이 제일 재미있던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썰매를 타는 것 보다 스케이트 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얼음썰매를 알지도 못할 것이다. 예전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스케이트 보다는 썰매를 타고 얼음 위에서 팽이를 치는 모습이 그려

져 있었다. 이제 서울에서는 동네 하천 가까운 저지대에 물을 가두고 얼음을 얼려서 만든 간이 스케이트장도 눈에 띄지 않는다. 스케이트는 아이스링크에서나 타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중국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차츰차츰 자연과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벌써 앞으로의 희망 보다는 추억을 씹으며 사는 세대가 되어서인가?

다음에 明13陵은 명나라 황제 중 13명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 중에서 定陵 한 곳만 발굴하여 관람객에게 관람시키고 있다. 능의 지하玄宮에는 마치 살아있을 때 처럼 황제의 玉座와 황후의 자리를 돌로 각아 만들어 배치하였으며 관의 위치까지 도달하는 데는 많은 육중한 문들을 통과하도록 축조되었다. 황제는 죽은 후에도 살아있었을 때의 영화를 재현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나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陵內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호우에 대비하여 排水口를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배수구의 크기는 정확한 수문학적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렵짐작으로 보더라도 어떠한 강우에도 충분한 정도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杭州에서

杭州는 南松의 수도였으며 지금은 浙江省의 省都이다. 上海에

서 杭州까지 가는데 소주-상해-항주를 운행하는 관광특급열차를 이용하였다. 이 열차는 외국인 전용으로 개발된 관광열차로서 객차가 2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주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객차는 최근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내부도 아주 깨끗하고 수송인원이 많아 좋아 보였다. 관광특급열차는 상해에서 항주까지 도중에 한번도 쉬지않고 달리는 직통열차인데 속도는 아주 느려서 열차의 평균속도는 50~60 km/hr로 170km 정도의 거리를 달리는데 3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상해에서 항주 사이는 거의 평야지대로 전형적인 농촌풍경이 전개되었다. 논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농촌부락은 주택모양이 거의 일정한 집들이 모여 있어서 집단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되었다.

항주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유명인들의 별장이 많이 있는 곳이다. 특히 西湖를 둘러싸고 주변경치가 좋기 때문에 등소평의 별장이 이곳에 있으며 강청, 임표 등의 별장도 있었다. 임표의 별장은 지금은 개조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西湖의 한 가운데는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곳까지 유람선이 왕래하며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있다. 인공섬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졌다.

아침일찍 일어나서 西湖호반을 산책해 보면 중국인들의 생활의 일부를 볼 수가 있다. 호반을 따라 만들어진 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체조와 같은 건강체조를 하고 있지만 특이한 것은 군데군데 성인남녀들이 카세트라디오를 틀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사교춤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요즘은 사교춤을 추는 것이 유행하여 널리 보급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교춤을 공공장소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배우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항주는 또한 唐代의 시인인 白居易가 항주에서 관리로 일할 때 西湖주변의 경치에 반하여 많은 詩를 남겼다고 한다.

항주, 특히 西湖 주변의 경치는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西湖가 인공진주 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인공진주 양식은 조선족 중국인이 성공

하여 대단히 큰 양식장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공진주 양식이 성행하고 있는 서호에는 세가지 금지사항이 있었는데 첫째는 수영금지, 둘째는 낚시금지, 셋째는 고기잡이 금지이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모두가 양식진주를 도둑질해 갈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경치를 사랑하는 西湖가 진주양식장으로 변한 것을 보고있자니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면서 즐기는 시대는 멀어진 느낌이다. 인간이 개발과 공업발달이라는 이름아래 자연을 훼손하고 토양과 물,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항주에 공업시설과 관광시설이 계속 들어섬으로써 머지않아 서호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의 조화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중국을 돌아보면서 느낀점을 두서없이 雜文으로 기록하였다.

끝으로 중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TV생산은 세계 3위로 올라섰고 자동차, 기차, 가전제품도 거의 자국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을 파고들기가 쉽지 않을것 같았다.

중국은 가볍게 볼 나라가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될 나라라는 것을 일찍부터 명심해야 하겠다.

蛇足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중국에 사는 조선족 중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고 가까이 하고 싶고 동족애를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동포와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단지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중국인일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중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약간의 충격이었다. ♣